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9월 7일(금)

(음력 7월 28일)

Пятница

7 сентября 2018 г.

№ 35(11680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31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앞마당 사할린한인희생위령비 앞에서 제25회 사할린동포 희생자 추념행사가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 2면)

(배순신 기자 촬영)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창립136주년 기념

이번 주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창립136주년 기념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시민들의 흥미로운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이 기다린다.

8일(토) 오전 10시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레닌거리(레닌 광장)에서 시민들의 행진이 있을 것이고 11시 30분에는 레닌광장에서 공연이 펼쳐질 것인데 시립 예술단을 비롯, 한국과 일본에서 온 연예인들의 무대가 준비된다.

레닌거리에는 콤무니스치체스키 프로젝트부터 사할린스카야 거리 까지 테마별(스포츠, 활동교실, 오락, 댄스 등) 장들이 펼쳐지고 시공원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개최된다.

8일 저녁에는 레닌광장에서 인기 있는 그룹들의 공연이 있고 21시50분에는 꽃불놀이가 시작된다고 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다음날 도시의 날 기념 행사 일환으로 <물고기 섬>음식축제가 열린다. 시민들은 여러 수산물요리를 맛 볼수 있다. 축제 공연 프로그램은 시공원에서 진행된다.

도시의 날에 앞서 지난 4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시장명의 포상 시상식과 도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과 기업을 '시 명예관'에 이름을 올릴 영예의 대상 증서 전달식이 있었다. 시장상은 10개 부문에서 선정된 13명의 시민들이 수여받았는데 그중 <아늑한 도시>부문에서 수상된 김기일 님은 페도토브 명칭 건재공장에서 기계공 총책임자로 근무 중이다.

2018년 도시 명예관에는 시민 11명과 기업 7개의 이름이 올라갈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 기자)

사할린 파견 예비교원 실습 시작

2018년 예비교원 해외 파견 실습 사업을 담당하는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박동호 교수와 동 대학교 송지연 담당 연구원, 경희대학교 박정은·제주대학교 김미정 경력교원, 예비교원 7명이 지난 9월 1일(토) 사할린에 내도했다.

박동호 교수에 따르면 사할린 실습프로그램기간은 2개월인데 이번에 1차로 한 팀이 한 달을 실습하고 10월에는 2차로 다른 팀이 와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의 요청에 따라 예비교원들은 교육원 내에서만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할린주내 한인회들이 운영하는 모든 한글학교에서 번갈아 수업지도를 할 계획이다.

강사들은 사할린국립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김나지아와 동양김나지아 등에서도 수업을 펼칠 것이다.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는 9-10월 간 한국어정규과정반을 개설해 화,목 저녁에 수강할 예정이다. 정규과정반은 9월 7일 오후 5 시 교육원 개강식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본사 기자)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태풍 제비, 사할린 피해

지난 5일(수) 태풍 제비로 인해 사할린의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8개 지방자치체의 20마을에서 완전히 정전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마카로브시,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아니와와 4 마을에서는 일부 정전이 있었다.

일본에서 상륙한 태풍은 폭우 30mm이상과 바람 33-38m/초속이었다.

포로나이스크구역과 마카로브 구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마카로브구역 경우 여러 군데에서 산사태가 생기고 도로를 통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할린 철도도 임시 차단되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태풍 청산 작업을 수백명이 하였다.

태풍 제비는 한국에서 지은 이름이다.

허진원 작가, 사할린에서 석달 간 취재

지난 9월 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해외레지던스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허진원(43세) 극작가가 사할린을 찾았다.

희곡 <땃>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고, 전국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창작산실 대본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위트와 풍자를 무기로 부조리한 인간 군상을 그리길 좋아하는 작가로서 현재 그의 작품은 중국,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무대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저서로는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으로 선정된<미사여구없이> 등이 있다.

허진원 작가는 체호브를 좋아하며 한인족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사할린 한인 2·3세대를 취재할 계획이다. 극작가는 석 달의 체류 기간 동안 '사할린'에 관한 대본을 집필할 계획인데 뮤지컬 대본과 영화 시나리오 한 편을 놓고 세 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으며, 초기에는 취재에 집중하려 한다고 전했다.

사할린 동포 작품으로 구성된 책 편찬

9월 7일(금) 오후 7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운명의 무늬>수집 출판기념회가 있을 예정이다. 김 아나톨리, 허 로만(허남녕), 김중성, 양 세르게이, 장태호 사할린 동포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이 책은 쿠즈네초프 명칭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도서관에서 발행했다. 이번에 참여한 작가·시인들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이들의 작품들에서는 우리 한민족의 정서가 느껴진다. 책 그림은 주명수 사할린 동포화가가 하였다.

9월의 사할린 한인 사회계 주요 행사

9월 7일 17시 - 사할린한국교육원 개강식 (사할린한인문화센터)

9월 8일 17시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자매결연 도시 안산 문화원 예술단들과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예술단(하늘, 아리랑)들의 공연 (장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9월 13일 11시 - 제6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봉환 추도 및 환송식 (한인문화센터)

9월 22일 - 돌린스크에서 사할린주한인회 주최 미니축구대회 개최

9월 29일 - 사할린주한인협회 대표자회의 개최

제25회 사할린동포희생자 추념 행사

추도사와 살풀이로 동포 영령 위로

지난 31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앞 사할린 동포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 25회 사할린 동포 희생자 추념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이 위령비를 세운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회장 이용택)와 세계 지역문화 예술 센터(센터장 정기옥)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행사 진행은 세계 지역문화 예술 센터 정기옥 센터장과 사할린주한인노인회 김홍지 회장이 맡았다.

이날 추념사를 한 이용택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 이용택 회장은 자신이 "사할린에 처음 온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다"며 사할린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일제시대 때 이곳 사할린의 한 탄광에서 6촌 형님이 석탄 캐는 일을 하였고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 분의 묘지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의



위령제는 헛되게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먼저 운명을 달리하신 동포들의 영령들을 추모하는 진정한 위령제라는 것을 잘 아시고 엄숙하게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혹시 이곳 사할린의 구천을 떠돌고 계시는 우리동포 영령님들이 계시면 이제 그만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내려 놓으시고 극락정토에 천도되시길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라며 표명했다.

추념행사에 참석한 사할린주정부 이성철 행정 부실장은 주지사의 명의로 매해 이 추념행사를 치르기 위해 한국에서 온 이용택 회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강제징용당한 분들을 기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자신의 조부모를 생각해 이 행사 뜻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올해는 강제동원한 지 벌써 80주년이 지나는데"라고 강조하며 "그토록 애원하던 고향에 결국 돌아가지 못한 채 망향의 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던 1세대 동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고 추모 행사에 힘을 더했다.

추념식 참가자들은 국화를 헌화하고 위령비 앞에 차려진 제사상에 술을 올리고 절을 하였다. 제사의식은 정기옥 센터장 지휘하에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를 찾은 어르신들은 준비된 한복을 입고 제사를 지냈다.

행사는 세계 지역문화 예술 센터 정기옥 센터장의 살풀이로 마무리되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세계지역문화예술센터 · 평택민요 보존회, <사할린 진혼제> 개최

지난 31일(금) 제 25회 사할린 동포 희생자 추념 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공존 역사의 메아리: "제1회 사할린 진혼제" <내 고향으로 가는 날> 행사가 펼쳐졌다.

이 행사는 세계지역문화 예술 센터(센터장 정기옥)와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보존회(보유자 어영애)가 주최, 사할린주한인회 후원하에 진행되었다.

평택민요보존회에서는 장례요 무대를 준비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장례요는 영혼들의 넋을 진혼춤과 함께 편한 것으로 길을 닦아준다.

"사람이 나서 살다 죽기까지 거쳐야 할 의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의례인 상례가 가장 규모도 크고 복잡하다."

<상여소리>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불리는 소리의 총칭이다. <상여소리>의 노랫말은 이승을 하직하고 저승으로 떠나는 망자의 슬픔을 읊은 것이 많다.

이날 관객들은 사할린으로 징용되어 돌아가신분들과 부인들이 이별하는 노래와 긴상여소리, 영결축문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평택민요보존회에서 마련된 무대로 희생동포들의 영혼들과의 작별했다.

* * *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평택민요보존회 예술가들이 가가린 시공원에서 공연을 가졌다. 아침 공연과 달리 축제분위기의 무대를 선보였다. 아리랑, 사물판굿, 버나놀이, 쇠놀이, 소고놀이, 채상 설장구, 진도

북춤, 경기민요와 12발 긴상모 놀이를 하여 공연장을 찾아온 관객들의 기분을 돋아주었다.

한국 예술가들은 앞으로 매해 사할린에서 출연할 것을 약속했다.

(취재: 배순신)

이모저모

2019년 사할린에서 제1회 청소년 영화제 개최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는 제8회 사할린 국제 영화제 <세계의 끝>의 일환으로 주의 중심도시에서 계획되었다.

포럼 주최측은 영화예술에 사할린 청소년들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주목했다. 1주일간 축제 기간에 십대들을 위해 무대감독, 디자인, 제작, 애니메이션과 같은 4개의 활동교실이 진행되었다.

명성 있는 거장들은 아이들이 그린 로고와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촬영한 단편영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흥미로운 질문에 답변했다.

내년 섬에서 개최될 새로운 영화제는 청소년의 창작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축제는 <빛의 조화>라는 이름으로 8월 17일에 시작된다. <콧소몰레즈> 영화관, 가가린 시공원,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호 김차니야 내 행사장에서 영화상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래 영화제의 주제는 아버지와 아이들의 문제이다. 작품들의 일부는 사할린과 그곳의 다민족 구성과 생태를 밝힐 것이다.

На Сахалине в 2019 году проведут перв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для молодежи

Новый культурный проект представил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рамках VIII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Организаторы форума отмечаю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со стороны сахалинской молодежи к искусству кино.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на фестивальной площадке для подростков работали четыре мастерские - режиссерская, дизайнская, продюсерская и анимационная.

Признанные мастера помогали ребятам самовыражаться в нарисованных логотипах и снятых по собственным задумкам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ах, отвечали на волнующие вопросы.

Новый кинофорум, который решено провести на остров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правлен на поддержку молодеж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Фестиваль будет носить имя «Игра света» и стартует 17 августа. Показы пройдут на площадках кинотеатра «Комсомолец»,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и гимназии №3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лючевой темой будущего фестиваля станет вопрос отцов и детей. Часть работ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Сахалину, его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у составу и экологии.

기록적인 수치의 사할린 주민들, 체호브산 정복

9월 2일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1100명의 섬주민들, 그리고 로스토브, 크림, 한국과 심지어 아프리카 방문객들이 체호브산을 등반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73주년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행사 중의 하나였다.

사람들은 섬의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인 해발 1045미터의 산을 5시간에 걸쳐 등산했다. 등산길에 미리 안내표시판을 설치했기에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었다. 코스 곳곳에 자원봉사자들과 비상대책부 직원들이 대기했다.

쉽지 않은 등산이었지만 사람들은 만족했고 뜨거운 차와 다과가 끝날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다. 산봉우리에 머무는 동안 250리터 이상의 차를 마셨고 50 킬로그램이 넘는 과자와 사탕을 먹었다. 등산길 입구에 등산객들을 위해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을 기념하는 마스코트와 리본 1500개가 마련되었다.

사회단체 <아드레날린> 회장인 니나 카소와는 "특히 금년에 모든 연령층의 아동들이 참가했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 중에는 스포츠와 유치원 분야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재활센터 아이들까지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상품 추첨이 진행되었다.

Рекордное число сахалинцев покорили пик Чехова

Новый рекорд установили 2 сен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1100 жителей острова, а также гостей из Ростова, Крыма, Южной Кореи и даже Африки поднялись на пик Чехова. Это было одно из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73-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Люди преодолели пятичасовой подъем на одну из высочайших точек острова, а это 1045 метров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Поход был очень организованным, так как тропа была промаркирована заранее. А на участках всего маршрута дежурили волонтеры и сотрудники МЧС.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ость подъема, люди были довольны, и многих согревала мысль, что к концу пути их ждет горячий чай и сладости. За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на горной вершине было выпито более 250 литров чая, съедено более 50 килограммов печенья и конфет.

(8면에 계속)

주한인회 청년들, 자선 활동



지난 2일(일)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청소년부(담당 박 알렉산드르)가 사할린주 아동병원 신생아 병리과를 찾아 기저귀 33팩을 기증했다.

정말 꼭 필요한 선물이라 신생아 병리과 올라 티모페예와 과장은 자못 기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생아 병리과는 미숙아와 만삭아의 치료와 간호를 전담하는 부서이다. 특히 미숙아 같은 경우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티모페예와 과장에 따르면 이 과에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는 간호사와 간호보조들이 일한다. 이들은 갓난 아이들이 정상퇴원할 때까지 몇개월이 걸리더라도 자기 친 자식처럼 돌보고 있다.

1년에 약 500명의 신생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중 일부는 어머니가 버린 애들이다. 티모페예와 과장은 주한인협회 청년들로부터 기증 받은 기저귀는 이들 아이

들에게 쓸 것이라고 한다. 일부 기저귀는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전달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 알렉산드르 주한인협회 청년부 부장은 "조금이나마 도울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계속 인연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찾은 주한인회 청년들도 의사와 간호사들 못지 않게 다들 기분이 흐뭇하고 좋았다.

청년들과 함께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도 동행해 이 기쁨을 나누었다.

한편, 올해 봄부터 적극적으로 자선 활동을 시작한 청년부는 이외에도 광복절 행사 조직 진행, 27인 한인피살자 현장관리, 제6회 '청년 전문가' 러시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Skills Russia)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 신생아 병리과 의료진과 주한인회 청년들. (본사기자)

사할린에서 개최된 강제징용80주년 남북리합동공연을 보고나서

아리랑으로 함께 하지 못한 사할린 남북리합동공연

기미양/아라랑학회 연구이사



지난 6월 한 국 을 방 문 한 사 할 린 주 한 인 협 회 박 순 옥 회 장 으 로 부 터 남 북 리 합 동 공연이 26년 만에 러시아 사할린에서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식행사명은 광복 73주년,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73주년기념 <우정의 날> 행사로, 사할린 동포 강제징용80주년을 기리기 위해 사할린주한인회(회장:박순옥)가 주최하는 남북리합동공연 행사이다.

14일 사할린한인협회의 초청을 받고 사할린으로 가기 위해 블라디보스톡 공항을 경유하는 길목에서 북측 통일음악단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어 더욱 가슴이 설레었다.

26년만에 사할린에 온 북한 공연예술단

18일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가슴 벅찬 날이다. 나는 오전 10시 해방절을 기리는 영예광장 성화 헌화식에 참여하였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사할린한인협회 림중환 회장이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음악단과 러시아 원동 고려인통일연합회 리규를

위원장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가까이 보게 되어 반가웠다. 헌화식을 마치고 본 행사가 진행되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박물관' 앞 광장 특설무대로 이동하였다. 먼저 남한측 국립국악원 소속 유지숙 명창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공연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날레는 모두 아리랑을 남북대합창으로 부른다고 했다.

고대하던 공연의 첫 막이 열렸다. 많은 축하 중 사할린 다민족협회 아코뻬 짜르키스 조리코비츠 회장이 "사할린에서 남과 북이 만나 아리랑을 함께 부르니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외쳐서 기립 박수까지 받았다. 사전 리허설을 보고 직관적으로 나온 멘트로 보였다. 그는 이미 아리랑을 통한 남북교류의 핵심을 알고 있었다.

남측에서는 국립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 북측에서는 삼지연악단과 모란봉악단 단원으로 구성된 '통일음악단', 사할린에서는 아리랑무용단과 에트노스예술학교 학생들이 출연했다. '길놀이'로 개막을 알리고, 첫 무대로 윤민자, 강팔용 사할린 동포가수가 강원도아리랑을 불러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반주로 유지숙, 김민경 명창의 '서도소리'가 흥을 돋우고, 마당에서 국립남도국악원의 '판굿'과 '진도북춤'이 약 5천여 관객의 흥을 신명나

게 일으켰다.

통일음악단(단장 조승권)의 힘찬 전주곡을 울리며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노래를 힘차게 불렀고 '황성옛터'곡은 1세 어르신들이 애창곡으로서 여가수가 구수하게 불렀다. '사랑의깃발', '군밤타령', '무정한 그 사람', '휘파람' 등의 10여곡과 러시아 애창곡 '카츄샤', '사랑의 메아리', '내 잘못일 게 뭐야' 등을 불렀다. 특히 원어로 부른 러시아 대중가요와 벨칸토 창법으로 부른 아리랑 열창은 현지 동포들과 러시아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스테이지에 나가서 댄스로 화답했다. 총평은 아쉽게도 사할린동포들은 남한 공연단보다는 북한 공연단에 더 많은 박수를 보냈다. 나는 남측 공연단이 앞으로 풀어야 할 무거운 과제를 안고 돌아왔다.

사할린에서 메아리친 아리랑

2부 무대에서는 사할린동포들이 준비한 아리랑무용단(단장:박영자)의 초혼무가 윤민자 명창의 소리와 함께 '사할린아리랑'이 펼쳐졌다. 사할린 1세대의 고통을 담은 사할린아리랑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이 행사를 주최한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취지에 맞는 작품이다.

사할린아리랑은 2016년 제1회사할린아리랑제에서 무대화되었고, 이후 전국아리랑전승자협회가 '찾아가는 사할린(7면에 계속)

(전호의 계속)

우선 이러한 '한시적 구제조치'가 왜 시행되었는가 하는 사례를 보기로 한다.

(표 2)

사례 1;

2017년 6월 9일, 고려인 4세 김올라 양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1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열리는 강제이주 80년 고려인 특별법 개정 촉구 청원서 전달식에서 '국민게드리는 편지'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를 낭독할 예정이다.

'모국의 따스한 품에 안겼다고 가족 모두가 좋아했는데, 4세대부터는 동포가 아니니까 출국하라고 합니다. 강제로 이산가족을 만드는 것이 재외동포를 위한 법인가요?'

'고려인 자녀들은 중도입국했거나 모국에서 태어나 공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다. 가족도 다 여기 있는데 성인이 되었다고 떠나지 않으면 추방한다는 것은 너무나 처사'라고 고려인 지원단체로 구성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기억과 동행위원회'도재명 상임대표는 목소리를 높였다. (동포4세라고 추방...고려인 이산가족 만드는 재외동포법, 연합뉴스, 2017. 6. 8. 강성철 기자.

사례 2;

2015년 10월부터 단기방문비자(C3-8)를 받아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 김레나(가명, 22/여)씨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살고있다. 그런데 그녀는 '어린 딸을 데리고 90일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제발 할아버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오래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김레나씨는 이번 법무부 '한시적 구제조치'에 '부모가 한국에 거주 중인 고려인 4세'로 규정되어 있어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출입국을 반복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에 고려인이 약 4만여명, 그 중 4000여명은 광산구 월곡/산정/우산동 일대에 산다. 안산에 고려인 1만여명이 살고 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의 경우, 한국말이 서툴러 주로 열악한 공장이나 농촌 시간제로 일하고 있으며, 성인 3500명 가운데 51%(1780여 명)이 제조업에서 일하며, 45%인(1600여명)가 일용직이다. 그러므로 이날 이천영 새날학교 교장은 국회에 재류중인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착지원을 위

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뿌리찾아 왔지만...90일마다' 추방' 되는 고려인 4세, 중앙일보, 2017. 11. 15.)

위의 표2는 고려인 동포 4세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4세 자녀는 1천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재외동포법으로 인하여 만 19세가 되면 한국을 떠나야하며, 또한 고려인 특별법은 지원대상에서 국내체류자 고려인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금년대로 출국해야하는 179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파악되지 않는 단기방문(C-3) 발급자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들이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힐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사의 이해과정을 담고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 자격은 부모 등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은 금지된다. (고려인 등 4세대 동포...'한시적 구제조치'시행, 중국 동포신문, 2017. 9월 24일.)

그러나 이들이 한국어나 한국사를 배우는 것이 제도적으로 이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조건들이 오히려 이들의 한국 체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법 시행령(제4조 제4항;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 10. 1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1.) 동법 제23조 제3항; ③ 별표 1 중 28의2. 제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2. 선량한 중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4]

한편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조항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및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단순노무행위위를 하는 재중동포, CIS 국가 출신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비자발급이 제한되는 것이다.)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 및 제23조 제3항)에 따라 중국, CIS 국가 출신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비자발급이 제한되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25세 이상인 자에게만 발급되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 동포 국내 체류 현황으로는, 약 56만 명 정도이며, 그 중 조선족이 50만 정도(F-4 비자-300,582명, H-2 비자 203,385명), 고려인(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자키스탄 등 포함) 이 55,686명(F-4 비자-30,468명, H-2 비자 25,218명)이다; 위 중국 동포신문, 2017. 9월 24일. ; 2017. 9. 12. 법무부 보도 자료에도 있음.)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만 19세부터 25세 사이에는 중국, 고려인 4세대 동포들이 한국에 체류할 자격은 단기비자의 길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эр Корсакова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естн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рассказал о планах по газификации города

Мэр Корсакова Тимур Магинский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айонн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удалось обсудить многи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района, в том числе и укрепление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между корсаковцами, что так же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для города.



— На Сахалине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люд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я вижу свою задачу в то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для всех равные и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жизни, чтобы все корсаковцы могли свободно жить, работать, общаться между собой, сохраняя при этом свой родной язык и традиции, — подчеркнул мэр в начале встречи. — И в этом я рассчитываю на помощь вашей ассоциации,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самой большой сред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Корсакова и пользуется заслуженным авторитетом не только в нашем округе и области, но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рсаковск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считывает 3,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 явля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торой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пос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июне 2005 года была создана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а", главными целями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ой являются сохранение духов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оспитание молодежи на основе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укрепление деловых 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При поддержке и личном участии членов ассоциации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школе №2, ведется постоянный обмен культурными, спортивными и деловыми делегациями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Корсаковом. В то же время в своей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работе ассоциация старается объединить корсаковцев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я.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были заданы на встрече мэру, также стали показателем того, как искренне и горячо корейск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переживают за судьбу родного города. Их интересовали вывоз мусора,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и качественный ремонт улиц, ход путины, экология.

Особенно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было задано по предстоящей газификации Корсакова и созданию в городе мест массового отдыха населения. Отвечая на них, Тимур Магинский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собравшихся, что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планируется оставить в городе две котельные, и он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газе. Это с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чистый воздух, горячую воду в батареях и кранах. Далее начн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сетей для подключения к газу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и инвестор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мест для отдыха, то основной упор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елается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улицы Советской, которая свяжет две главные площади города.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парк. Еще одна новая зона отдыха будет создана на участке улицы Речной, недалеко от старого рынка. И в перспективе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бережной.

В конце встречи Тимур Магинский еще раз поблагодарил членов ассоциации и в их лице всю корейскую диаспору Корсакова за активную позицию и включенность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айона, сообщает IIA Sakh.com со ссылкой на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 Корсаков — ваш родной город. Многие из ваших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давно уже прочно вошло в сахалинскую жизнь, — сказал мэр. — Мы готовы помогать вам в вашей работе и проведении праздников. В план работ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включены два больших корейских праздника —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15 августа) и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что позволит оказать организационную и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Откуда взялись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Спецкор газеты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Наталья Варсегова изучила историю переселения народов на примере своей семьи



Свадьба старшего сына в семье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живают около 40 тысяч корейцев. Среди них есть и мои родственники. Как они там оказались? Раньше меня этот вопрос особо не волновал. Покопаться в своем прошлом я решила только сейчас, когда поехала знакомить 11-летнюю дочь с нашей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родней.



Наталья Варсегова

СО СВАДЬБЫ В ШАХТУ

Японские полицаи пришли за моим дедом в его первую брачную ночь. Это случилось в 1943 году в небольшой корейской деревеньке под городом Кенджу (ныне Южная Корея). Накануне 26-летний Ко Сан Сай женился на 17-летней красавице Юн Им Сун. По законам того времени деду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либо служить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либо добывать уголь в трудовой лагере на острове Карафутто (ныне Сахалин). Ко Сан Сай выбрал уголь. Так он оказался в рабочем поселке на запад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близ нынешнего Шахтерска. Работать приходилось больше 12 часов в сутки. Платили за тяжкий труд немного, но Ко Сан Сай умудрялся с каждой полочки отправлять переводы старшему брату. Оставлял себе лишь несколько грошей на пропитание. По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и он верил: если у старшего будет достаток, то и у младшего брата тоже будут водиться деньги.

Японское начальство деда уважало. Выносливый, не ленивый. И потому спустя два года ему дали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отпуска. Ко Сан Сай попросился домой, чтобы привезти на остров молодую жену.

Едва добравшись до родной деревни, дед велел Юн Им Сун собирать вещи. Переночевав в доме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молодые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 Тогда они и не предполагали, что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м предстоит только через 50 лет. Остаться в Корее дед не мог, его сочли бы дезертиром и отправили в тюрьму. С инакомыслящими японцы не церемонились. Так младший брат Ко Сан Сая был жестоко убит в Корее за выступления на анти-японских митингах.

Сахалин встретил молодую кореянку неласково. Суровый климат, тесный барак в шахтерском поселке, который пр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назовут Ударным, и угольная пыль. Казалось, ею было пропитано все. Сл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какую бурю эмоций испытала Юн Им Сун, увидев свое новое жилье. Бабушка выросла в семье, где каждые выходные на обед подавали и мясо, и рыбу, хотя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в те годы бедствовали и питали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рисом.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НЕ ПОЛУЧИЛОСЬ

Для современного Сахалина дата 2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значит чуть ли не больше, чем традиционное 9 мая. Тогда, в начале осени, подписанием акта о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завершилась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и на остров пришла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Японские военные и гражданские спешно покидали Сахалин, боясь расправы от русских.

Тогда же и дед с бабушкой решили ехать на родину. Собрали чемодан, кое-как добрались до ближайшего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и даже

попытались сесть на пароход до Японии. Но японцы их не пустили. Стали ждать следующего судна. Жить было негде, на счастье они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 одной из м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и те приютил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днако сбежать с острова не получилось. Японцы не пустили ни на один из своих пароходов.

А других вариантов уехать на родину просто не было.

Впереди семью ждала безысходность и все тот же грязный барак на несколько семей.

ОДНОСЕЛЬЧАНЕ ПРОСИЛИ В ДОЛГ

...Пр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дед работал на износ. Сначала в шахте, потом освоил строительное дело и пошел учеником на стройку. Постепенно и он, и бабушка заговорили по-русски. В семье родилась дочь — Ко Хен Дя (Катерина). В поселке Ударном Ко Сан Сай уважали. Он довольно быстро стал бригадиром. Рабочие его ценили за честность и трудолюбие. Дед первым в поселке поставил отдельный дом и перебрался туда с семьей из опостылевшего барака. К тому времени детей у Ко прибавилось. Родились Ко Те Хван (Геннадий), Ко Тхя За (Татьяна). Позже появились на свет Ко Те О (Николай) и мой отец Константин — Ко Те Бок. Я, стало быть, Тебоковна. Семья не бедствовала, местные постоянно обращались к деду с просьбой занять денег. И тот никому не отказывал.

Бабушка тоже не сидела сложа руки. Она выращивала на огороде овощи и продавала их на рынке. Привезет картошки, моркови, капусты и за полдня все продает. По словам родных, была у нее мощна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ая хватка. Наверное, она как никто понимала, что время — деньги. И когда выдавалась свободная минута, она жарила семечки и продавала их около дома кулечками.

ДОБРАЯ ВЕСТЬ

И лишь одн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не давало покоя. Каждый день они ждали известия, что корейцам можно будет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Но между СССР и Южной Кореей не был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оэтому надеяться было не на что.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даже переписываться с родными.

Дед вставал в 5 утра, включал маленький приемник и пытался поймать корейскую радиоволну. Звук едва пробивался через сильные помехи. Но Ко Сан Сай не терял надежды. И как-то раз в конце 1960-х он вдруг услышал, что его, Ко Сан Сая, разыскивает семья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Дед припал ухом к приемнику, но волна уходила и из динамика раздавался лишь скрежет. Дед сильно разволновался. Значит, живы брат и его семья! От переживаний Ко Сан Сай ни с кем не разговаривал. Молчал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остепенно волнения сменились беспокойством — нужно что-то делать. Как-то дать знать своим, что он жив, здоров и живет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л советоваться со знакомыми, как быть. И кто-то подсказал ему, что в Японии живет кореец, который может помочь. Надо отправить на его адрес письмо для родных, а он перешлет его в Корею. Через него ж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ответ. Дед написал. Ответ от брата пришел спустя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Стоит ли говорить, что это событие стало настоящим семейным праздником. Так у Ко наладилась связь с домом.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Наталья Варсегова/ КП, 21 августа 2018 г.)

Уважаемый читатель!

Приглашаем Вас на презентацию литературного сборника «УЗОРЫ СУДЬБЫ»,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7 сентября 2018 г. в 19.00.

В сборнике «Узоры судьбы» впервые собраны произ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чье творчество является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соединения очень разных культур: восточной и западной. Ким Анатолий, Хе Роман, Ким Цын Сон, Ян Сергей, Чан Тэхю — все они рождены в России, их судьбы так или иначе связаны с Сахалином. Но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этих писателей слышен зов предков, что делает неповторимой их прозу и поэзию.

Городская центр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им.О.П. Кузнецо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Жертва преступлений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Ким Бок Тон против компенсации от Токио

3 сентября жертва преступлений японской армии – 92-летняя бабушка Ким Бок Тон в одиночку провела митинг перед зданием МИД. Эта акция является первым выступлением в ряде мероприятий,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ей Justice for the «Comfort Women». Ким Бок Тон выступила против Фонда примирения, который был создан сразу после достижения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между РК и Японией по улаживанию проблемы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Она подчёркивает, что боролась н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деньги, а рад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Она потребовала немедленно закрыть фонд, который был создан, чтобы распредел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выделенную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Между тем, выясняются новые подробности данного дела. В частности, в ход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куратуры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за год до достижения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вопрос создания данного фонда уже обсуждался член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езидента.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седьм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С 12 по 14 сентября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седьмой по счёту ежегодны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Сеульский оборонный диалог» на уровне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ов.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25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49 стран и четырё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том числе, ООН и ОБС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тказались от приглашения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В рамках основной темы мероприятия «Устойчивый мир: от конфликтов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его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море,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укрепления доверия в региона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экстремизма,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состоятся ряд двусторонних и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встреч.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е планируют выплачивать бонусы к празднику Чхусок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е планируют выплачивать бонусы к традиционному празднику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выпадает на 24 сентября. Как сообщает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Saramin,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руководителей 880 компаний. Как оказалось, 450 из них, или 51%, не планируют выплачивать праздничные бонусы своим сотрудникам. Между т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онусы платили 54,5% компаний-участниц опроса. Размер бонуса в тех компаниях, которые намерены его выплатить составляет в среднем 620 тыс. won или 560 доллар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редний размер бонуса был на 40 долларов больше. В размерах бонусов, которые выплачивают различные фирмы, име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ая разница. В крупных конгломератах он составит в среднем 1.100 долларов, в средних - 680 долларов, в малых – 530 долларов

23-й Пу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пройдёт с 4 по 13 октября

23-й Пу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BIFF) пройдёт с 4 по 13 октября. Откроет фестиваль лента под названием «Beautiful Days»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Юн Чжэ Хо. Она посвящена трагическим судьб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По сообщению оргкомитета мероприятия, показы кинофильмов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на 30 экранах.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323 фильма из 79 стран. Это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жидаются 115 мировых премьер. 25 фильмов будут впервые показаны за пределами страны-производителя.

Фильм «Вместе с богами: последние 49 дней» набира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за рубеж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Вместе с богами: последние 49 дней» получил больш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в РК, но и за рубежом. 8 августа премьера фильма состоялась в Гонконге и на Тайване. Так, на Тайване фильм уже которую неделю держится в верхних строчках проката даже спустя четыре недели с начала показа. Кассовые сборы составили более 13 млн долларов. В РК фильм посмотрели уже более 12 млн зрителей.

(RKI)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ась XVI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Science. Friendship. Collaboration.” Именно под таким девизом в период с 26 по 28 августа в Москве прошла XVI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собравшая более 100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зличн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и Белорусси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нференции традиционно является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АНТОК», вот уже более 20 лет проводящее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же принял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ООК), Федерация научных и техн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корейцев (KOFST, Южная Корея),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KORUSTEC),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МДКМ),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е обществ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АХАК» и Узбекистана «ТИНБО».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мероприятия оказала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Рабочая часть программы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ходила в гостинице «Холидей Инн Лесная». Ее основной части предшествовал молодежный семинар Startup Lab, модер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ил доктор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Хван А.Д., возглавляющий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 Воронеж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начале семинара участникам была прочитана небольшая вводная лек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вопросам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научных разработок,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прав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После этого участники разделились на несколько проектных команд, каждой из которых предстояло в течение 24 часов проработать и представить на конкурс свой проект.

Церемония официального открытия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лась 27 августа. На ней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 президент НТО «АНТОК», профессор Тен Э.Б., пожелавший участникам продуктивной творческой работы и отметив-

ший, что с каждым годом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новятся все больше ученых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подтверждая тем самым е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татус. Также в процессе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участников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президент KOFST Kim Myung Ja, Министр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Москве Kang Daesoo, начальник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ого отдела Российского фонда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Шаров А.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Ким М.И., президент «КАХАК» Мун Г.А. и почетный президент НТО «АНТОК» Цой А.Д.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программы первого дня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секцию пленарных докладов и 3 тематических научных секции: «Биотехнологии, химия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Физика, математика и IT» и «Инженерные науки,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и науки о земл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рамках пленарных сессий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дня и тематических секций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более 30 докладов, посвященных как отдельным проблемам конкретных отраслей, так и глобальному видению роли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в развит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Кроме этого, в рамках отдельного научно-семинара,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доклады, посвященные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особенно более молодых участников, привлёк мастер-класс, посвященный популярны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технологиям интернета вещей – Internet of Things (IoT), проведенный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компании Samsung – Samsung R&D, Светланой Юн и Татьяной Волковой. В процессе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участник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базовыми понятиями да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бсудили вместе с ведущими их достоинства, недостатки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после чего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небольшом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ом конкурсе, предполагающим ра-

боту с реаль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устройствами, используемыми в IoT.

Также в заключение первого дня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участники молодежного семинара Startup Lab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конкурс свои иннова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и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я, которым стал проект, посвященный разработке и внедрению системы наезда на пешехода. Закончился же первый день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праздничным банкетом с теплыми словами тостов, отражающими общий,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зитивный, настрой участников. Чего только стоили сл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Промышл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KITECH) доктора Kim Hwi Jun: «Я люблю Россию, я люблю Корею, я люблю вас»!

Второй день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открылся секцией пленарных докладов, на которой выступили академик РАН Сон Э.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Института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STEPI) доктор Yim Deok Soon и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науки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KAIST) доктор Rho Jae Jeung.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ла секция стендовых докладов, формат которой, по мнению организаторов,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пособствует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му обмену информацией, поскольку не стесняет участников-слушателей рамками одной секции и позволяет избежать ситуации, при которой слушатель вынужден выбирать один из нескольких параллельно представляемых докладов, а с другой – позволяет в условиях ограниченного времени представить результаты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гораздо более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В заключении второго дн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теплоходная прогулка по центру Москвы, в процессе которой участники,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уже давно стали друзьями, могли пообщаться в неформ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и восстановить силы после активной работы.

(Источник: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АНТОК)

Игры вне политики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и попытаются договориться, чтобы подать совместную заявку на проведение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32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здание "Мани Тудэй", ссылаясь на источни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 парламенте страны.

Как отмечает газета, на дня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вели закрытое совещание,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обсуждался план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какого-либо круп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мирового масштаба. В итоге выбор пал на летнюю Олимпиаду-2032.

Эту тему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может предложить КНДР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 ходе ближайшего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Пхеньян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МОК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т идею межкоре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Победитель в борьбе за право провести ОИ-2032 будет объявлен уже в 2021 году.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Правила оформ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страховк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будут изменены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К, смогут оформить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лишь после шести месяцев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в РК. Уведомление о введен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действует с 29 августа. Раньше иностранцы могли оформлять страховку после трех месяцев проживания в стране. Кроме того, при продлении визы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сможет получ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наличии долгов по страховке. Согласно новым поправкам, теперь оформлять страховку смогут и беженцы, получивши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живание в РК. Поправки также определяют новые критерии, по которым сумма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иностранцев будет равна сумме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граждан РК.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9 сентября 2018 г. —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ыборы кандидата в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7 созыва по одномандатному округу №9

ВОРОПАЙ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На Сахалин я приехал в 1994 году и с тех порт считаю его своим домом. Здесь я живу и работаю, здесь учатся мои дети. Я горжусь нашим краем, его природными богатствами, людьми. Сахалин— уникален, и с этим не поспоришь. Но видят ли люди эти богатства? Водно-биолог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пределяются без учета интересов сахалинских рыбаков, живя на Сахалине мы не можем порой купить рыбу, которая продается по завышенным ценам в магазинах.

Условия жизн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леки от идеальных. Уровень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чем в Москве, а тарифы на ЖКХ и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 в два раза выше. Малонаселенность и неразвитость многи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 это явное упущение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и экономики. Жизнь во многих поселках и районах замирает. И все из-за недостатка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что можно избежать при соотвествующем контролировании распределения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Живя на островах, жители ощущают изолированность и отрезанность от материка. Порой мы не можем добраться с Сахалина к своим родным, друзьям преодолев всего 705 км до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А цены на многие виды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взлетают» только по причине оторванности от большой и далекой земли.

Необходимо поднимать уровень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Надо наконец-то осознать, что главное богатство – это люди! К которым мы обращаемся не только во время выборов, наши люди, несмотря на непростые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умеют и хотят здесь жить, работать, учиться. А мы должны создать им таки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не было массового оттока населения, чтобы Сахалин был



привлекателен для наших детей,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чтобы молодежь не смотрела в сторону границы, а хотела посвятить свой труд родному краю.

Мы не задумывались, почему пенсионеры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азвитых странах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могут позволить себе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миру, а наши старики влекут жалк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70% их пенсий идет на покупку лекарств, оплату ЖКХ. И что им остается на жизнь? Что можно купить на МРОТ?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ы часто слышим, что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 это острова, на которых хочется жит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это территория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Возможно есть шаги к улучшению, но они очень робкие и медленные. Взять хотя бы объем ветхого жилья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Людей попросту некуда переселять. Новые дома если и строятся, то не в тех темпах,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жилплощадью людей, которые каждый день находятся в непригодных и зачастую опасных для жизни условиях. Много новострое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они недоступны для простых людей. А людей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ах и поселках переселяют в ветхое.

Мы хотим развивать туризм, но для этого надо для начала развива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ведь у нас есть чем похвастаться и что предложить!

Мы часто слышим от более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укоры молодежи, что «...я в твоём возрасте был более целеустремленным и не тратил время на игрушки». А достаточно ли мы делаем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Достаточно ли у нас спортивных сооружений, особенно в районах?

У нас в Конституции в ст. 15 п. 4 говорится, что принципы и нор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преобладают над принципами и нормами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а. Почему так? Всей нашей стране необходимо обрести суверенитет и выйти из под внешнего управления, тогда и деньги появятся и жизнь наладится.

Перечень больших вопросов для каждого из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жно продолжать.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многое зависит от тех, кого мы выбираем, кто готов отстаивать интересы земляков.

Я живу проблемами земляков, потому что я и сам каждый день с этим сталкиваюсь. и мне есть что предложить избирателям. Я, Александр Воропай, иду на выборы от партии ЛДПР, потому что считаю, что:

- Нам необходима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рыбной отрас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Мы все знаем, что наш край богат и мы можем добиться, чтобы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налогов и поступлений остава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растут наши дети, где будут расти наши внуки.
- Одной из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задач ЛДПР, и я полностью это поддерживаю – введение безналоговой экономики. Средства, полученные от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должны оставаться в регионе и идти на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а не направлять в общ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казну или другие регионы.
-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ряд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а сколько

районов еще не газифицировано, а сколько еще котельных «убивают» экологию нашего острова.

- Будущее области за развитием транспортных связей, как между островами региона, так и островом и материком.
- Если будут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остойное жилье, мы сможем избежать оттока населения, и сделаем наш регион наи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предпринять ряд мер,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емы – это и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я, сто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и возрождение стар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производств; расширение положения закона 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гектаре; беспроцентный кредит молодым семьям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и т.д.

Все это осуществимо, я в этом уверен. Главное, чтобы интересы островитян отстаивал депутат с безупречной репутацией, патриот своей Родины и того края, где он живет, который из множества замечаний, обращений и критики населения сможет увидеть то,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принять и инициировать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ы и акты.

Сложно вести диалог с властью, когда нет законов, регулирующих реальную, а не бумажную жизнь. В партии ЛДПР произвели расчет: при условии реализации вышеуказанных мер можно ожидать рост населения, привлечения туристов и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за 20 лет.

Если и вы думаете так же – будьте сопричастны к реальным шагам для возрождения нашего края!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ЗО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3면의 계속)

아리랑'공연과 전국 지역 아리랑제 무대를 통해 사할린 동포 윤민자와 원명운의 소리로 국내에 소개가 되었다.

이 사할린아리랑은 2003년 새고려신문의 공모작으로, 일제로부터 이중징용을 당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고난을 담고 있는 망향의 노래이다. 사할린 한인은 국적이 조선, 일본, 무국적, 소련, 러시아로 5번이나 바뀌는 굴곡진 삶을 살아왔다. 일부는 북한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형제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살아남은 가족은 남과 북에서 각각 살고 있는 셈이 된다. 또한 남과 북에 각각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해외동포 역시 사할린 동포집단이다. 국내 27개 지역에 사할린 동포 1세가 영구 귀국하여 살고 있다. 이는 외세에 의한 이중징용에 이어 자국에 의한 또 하나의 이산(Diaspora)의 결과이다. 일부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우리의 노래'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후림을 따라 부르며 화답했다. 이는 현지 동포들의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실정은 아리랑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 사할린 동포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복잡한 민족모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할린은 남북합동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견인하기에 충분하다.

이어 북측 통일음악단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조국 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사랑의 빔발' '김정은 장군' 등의 선전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기다리던 북한아리랑도 들을 수 있었다. "저기 저산이 백두산이라지/ 동지 선달에도 꽃만 핀다/ 달뜨고 별뜨고 해도 뜨네" 벨칸토 창법으로 부른 아리랑은 러시아 동포들에게 익숙한 선율이어서인지 함께 따라 부르면서 박수를 보냈다. 이어 사할린 유치원생들이 아리랑 선율에 맞춰 부채춤을 선보이자 많은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 북한과 사할린의 아리랑 향유는 우리가 끈끈한 아리랑민족임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남북예술단은 전날 진행한 리허설 피날레에서 남북대합창 '아리랑'을 부르기로 했으나 현장에서는 이뤄지지 못해서 아쉬웠다. 대신 북한 공연단이 부르는 아리랑

사할린에서 개최된 강제징용 80주년 남북리합동공연을 보고나서

아리랑으로 함께 하지 못한 사할린 남북리합동공연

기미양/아라랑학회 연구이사

과 '다시 만나요'라는 대합창으로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며 막을 내렸다. 정작 북한 지역 아리랑과 팔도아리랑 음반을 낸 서도소리 명창 유지숙이 준비한 아리랑은 다음날 사할린 주의 대표적인 탄광촌이었던 토마리(Томари) 마을 공연에서 불려졌다. 돌아와서 유지숙 명창은 나에게 남북합동공연 전체 콘셉트에서 서도소리보다는 아리랑메들리가 더 나를 뻘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해외 동포들과 함께 하는 남북합동공연에서는 아리랑을 레퍼토리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제3국 사할린, 한민족아리랑축제의 거점

관객 중에는 북조선 사할린 파견 근로자들이 꽤 많았다고 전한다. 사할린은 북한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진출한 첫 무대인만큼 특수한 지역이다. 사할린은 러시아 내 타 지역보다 개별적 일거리가 많으며 노동조건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북한에서 파견 지역으로 인기가 높다.

또한 사할린은 한인이나 조선동포들이 많아서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개별적 일자리 연결과 자국 언어 소통을 이유로 사할린의 북한노동자들은 북한의 감시체계 속에서도 내부인 뿐 아니라 현지인 및 한인·조선동포 등 재외 한인들과도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8월 24일자 새고려신문 기사에서도 “북한 체제 선전 노래 때문에 아쉽게도 이날 계획했던 <아리랑> 남북합창 무대는 성사되지 못했다.”고 하고 이러한 원인은 "26년만에 여는 남북공동공연이라 조율이 안 되었다"고 대변했다. 그렇다하더라도 남북이 함께 만나서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반감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아쉬웠지만 이번 합동공연을 통해 앞으로 사할린은 제3국 해외동포들이 집결하여 남북이 함께 하는 한민족대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거점이 된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주최 측인 사할린한인협회가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전후 중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20일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다음 사할린아리랑제에 다시 한 번 북한공연단과 함께 남북합동공연을 이루어내자고 나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돌아오는 21일에도 공교롭게 같은 시각 북측 통일예술단과 블라디보스톡발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북측 공연단과 나누고 싶은 말을 가슴깊이 새겼다. '제3국 사할린을 거점으로 다음 남북합동공연에서는 아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다행히 아직 잔존하고 있는 실향민들과 남북으로 흩어진 해외동포 가족들은 통일된 조국의 땅을 밟고 싶다고 한다. 통일이 되어야만 북으로 유학 가서 돌아오지 못한 동생을 고향땅에서 다시 우리 형제들과 재회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3국에서라도 자주 만나야 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입증하는 아리랑을 통한 남북교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해주고 싶었다. 나아가 아리랑만큼은 남과 북이 아리랑 공동등재를 위해 노력하자고 부동켜안으며 말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한국에 돌아와 이산가족상봉 뉴스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눈물짓는 실향민을 접하면서, 더욱 다음 남북합동공연을 기대하고 기대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8월 20일 11시 사할린한인협회 초청을 받고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에서 아리랑학교 아리랑특강을 하게 되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이라는 주제와 사할린을 거점으로 하여 사할린아리랑제에서 남북합동공연을 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아리랑학교는 사할린주한인협회와 홈스크한인협회에서 초청을 받아 9월 10일 이후 양 도시 한인협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리랑학회)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На подъемном пункте участников похода ждали ростовые куклы и 1500 лент, приготовленных ко дню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Больше всего впечатлило,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вовало много детей, абсолютно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И среди них были и спортивные, детские секции и даже дети с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дреналин» Нина Кассова.

Также между участниками похода был проведен розыгрыш призов.

오하 학생들 <타마니 카자초크> 전국대회에서 수상

2018년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크라스노다르변강에서 진행된 제25회 <타마니 카자초크 – 2018> 전국 축제에서 오하 학생들이 수상자가 되어 42개의 상장과 5개의 뱃지를 받았다.

전국 10개 지역 550명 이상이 아동 축제대회에 참가했다. 금년에는 크라스노다르스크 주가 독일·파시스트 침략으로부터 해방75주년을 맞이해 <타마니 카자초크> 행사가 펼쳐졌다.

이 섬 팀은 주 차원에서 열린 전국 축제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오하 아동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북풍> 앙상블 단장인 왈렌티나 야쿠시나는 "우리는 3년 연속으로 <타마니 카자초크>에 참가한다. 우리는 축제를 앞두고 여름내내 의상 제작했고 노래와 춤 연습을 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 연령대에서 우승했고 1위 상장 19개, 2위 상장 12개와 3위 상장 11개를 받아 왔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할린에 돌아왔다."라고 소감을 나누었다.

학생들은 <코자크의 대는 끊어지지 않다>, <어린 수장>, <나샤 베레기냐>, <코자크 전통과 현대>, <내

작은 고향>벽신문 대회를 포함한 5가지 부문으로 전국 축제에서 승부를 겨루었다.

Ох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стали лауреат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Казачок Тамани»

На XXV Всероссийском фестивале «Казачок Тамани-2018»,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с 17 по 28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ребята из Охи стали лауреатами, завоевали 42 диплома и 5 нагрудных знаков.

В детском фестивале-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50 человек из 10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этом году «Казачок Тамани» был посвящен 75-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от немецко-фашист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В состав островной команды вошли 10 ребят из Охи – побед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 Уже три года подряд мы принимаем участие в «Казачке Тамани». К этому фестивалю мы готовились все лето,шили костюмы, репетировали песни и танцы. Наши труды и старания не остались незамеченными. Мы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свое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и привезли 19 дипломов I степени, 12 дипломов II степени и 11 дипломов III степени. Для нас это очень значимая награда, мы с гордостью вернулись на Сахалин, – поделилась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ллектива «Северный ветер» Валентина Якушина.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фестивале ребята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пяти номинациях: «Казачьему роду нет переводу», «Юный Атаманец», «Наша Берегиня», «Казачьи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конкурс стенгазет «Моя Малая Родина».

사할린 연금자, 100 만 루블리 이상 보이스피싱 당해

2018년8월 30일에 알렉산드로브스크-사할린스키 70세의 시민이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녀는 7월말부터 모르는 범인에게 사기를 당해 100만 루블리 이상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2016년에 신고인이 영양제를 주문했다. 그 후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 그들은 결함 상품을 팔았기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하고자 하

는데, 그러기 위해 어떤 이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라고 지역 경찰서 홍보실이 전했다.

사기꾼들은 오랫동안 연금자를 설득해서 그녀의 환심을 샀다. 결국 그들은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이 여성은 그들에게 110만 루블리를 이체한 걸로 드러났다.

수사 중이었던 경찰관들은 현재 핸드폰 번호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송금한 예금주의 이름까지 알아낸 상태다. 내무성 홍보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모스크바주에서 그녀에게 연락을 취한 걸로 밝혀졌다. 경찰관들은 범인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여러 가지를 요청한 상태다.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다.

Сахалинская пенсионерка перевела мошеннику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70-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30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обратилась в полицию. Она заявила, что с конца июля неизвестный выманил у нее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В 2016 году заявительница заказала биологические активные добавки к пище. С тех пор ей стали звонить неизвестные люди. Они утверждали, что продали некачественный товар и предлагали возместить моральный ущерб, но для этого ей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оплатить некую комиссию за перевод, -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ции.

Мошенники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о уговаривали пенсионерку и втирались к ней в доверие. Наконец, им удалось воплотить в жизнь свой преступный умысел с лихвой. В период с 30 июля по 25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женщина перевела им 1,1 млн рублей.

В ходе проверк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установил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а также имя владельца счета, куда пострадавшая перевела деньги. По словам сотрудника пресс-службы УМВД, звонили ей из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ицейские отправили ряд запросов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организации для установки местонахождения преступников.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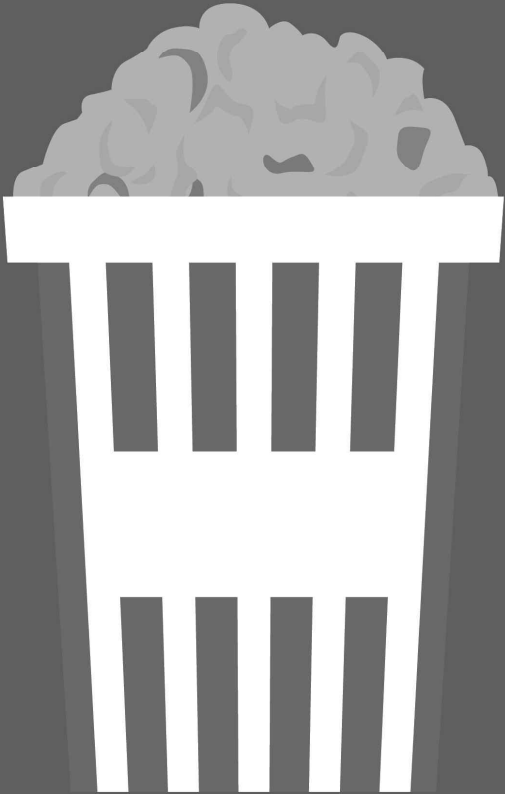
реклама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